



2012년 2월 내가 북을 찾았을 때 간 곳은 평양의 만수대창작사였다. 그곳에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기마동상이 모셔져있다. 작년 9월 다시 조국을 방문했을 때는 만수대언덕우에 모셔져있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을 찾아 꽃을 드리고 인사를 올렸다. 고국방문의 나날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찾곤 하면서 내가 체험한 느낌과 감동은 자못 큰바이지만 루루이 다로 할수는 없다. 지금도 눈에 선하고 기억이 생생하다. 작년에 만수대창작사에 모셔져있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을 찾았을 때였다. 립추의 여지없는 사람들속에 끼워 절세위인들의 기마동상을 돌아보고난 나는 그곳에서 일하는 공훈조각작단원의 인민예술가 우용호선생에게서 감

동의 말을 듣게 됐다. 기마동상건립에 대한 얘기였는데 나뿐이 아닌 북동포들도 때늦게 알게 된 사연같은 사실이었다. 만수대창작사 창작가들은 오래전부터 김정일장군님의 동상건립을 소원하는 인민들의 의사와 기대에 못지 않게 자신들의 본연의 소명으로부터 그분의 동상을 모시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절대 불허하셨다는 것이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사람들속에서 이구동성으로 동상을 세우려는 기미만 보이면 그분께서는 사양이나 만류정도가 아니라 엄하게 질책하고 단호히 거절하셨다고 하는 것이었다. 동상건립을 굳이 밀착은 그분의 논거는 명명백백한

것이였다. 경제문제, 인민생활향상문제를 풀고 강성국가를 건설해야 하며 조국통일도 해야 하기때문에 할 일이 많은데 무엇때문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김정일장군님은 정말 겸허하셨다. 그분께서는 동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위인의 력사는 동상이나 기념비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업적으로 빛나는 것이라고 하셨다. 는데 말씀 마디마디에 고결한 성품과 겸허한 인품을 지니신 그분의 위인상이 그대로 담겨져있는 것이라고 느껴졌다.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을 찾아 흐르는 끝이 없을상싶은 인파를 보면서 내가 몇번이

나 되뇌인것은 위인은 너무도 평범하고 겸허하셨고 그 겸허함이 온 민족에게 가실수 없는 후회와 아쉬움을 남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난 9월 고국을 방문했을 때 만수대언덕우에 모셔져있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앞에서 실감한 충동은 그분이 아니었다. 그날 내가 만난 함경남도 함흥에 거주하고있다는 70歳の 한 로인에게 들은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있다. 그는 말하기를 장군님의 동상을 보지 못한 한이 컸는데 김정은원수님대에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는 소망을 이룬 기쁨이 더 커 이제는 여한이 없게 됐다고 했었다. 정말 그러했다. 장군님의 동상은 이미 불멸의 기념비

로 남나로소 고국인민들의 마음속에 높이 솟아있었기때문에 그처럼 짧은 시일에 평양의 만수대언덕과 자강도 강계땅을 비롯해 고국의 여러곳에 그분의 동상을 높이 모실수 있는 것이었다.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앞에서 나는 절세의 애국자, 천출위인의 고매한 성품에 대해 온몸으로 절감했고 령도자를 경모하며 천세만세 받들어모시는 조국동포들의 끝없는 신뢰와 순결한 도덕의리에 대해서 그리고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고국의 현실에 대해 깊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부언하건대 령도자와 인민이 운명공동체를 이룬 혈연의 늑대는 북의 제일가는 무기이고 민족의 번영과 전도가 달린 천하지대본이라는 것을 실감한 것이다. **최 알렉세이 (재가자흐스탄동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장정은 우리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절세의 애국자, 희세의 위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한평생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 높이 드시고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번영,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으시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이어 인민들과 동고동락하시며 외세의 침략을 막고 강성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자신의 한생을 바치시었다.》(리희세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 위원회 유럽지역위원회 상임대표) 《김정일장군님의 한생은 세계력사에 지울수 없는 업적을 남기신 국가 및 정치활동가로 현시대인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다.》(제우즈베끼 스만동포신문 《통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위대한 존함과 고귀한 업적은 우리 민족사와 세계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다.》(김현환 재미동포) 《김정일령도자의 담력과 배짱에 의해 승리만을 떨치며 전진해온 조선이라는 함선은 자기의 항로대로 변함없이 력사의 온갖 반동무리들을 쳐갈기며 강성과 비약의 속도로 끊임없이 내달려 반드시 최후승리의 대안에 닦을 내리게 될것이다.》(아랍에미리트문화공보협회 총서기) 《세계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룩하신 업적은 참으로 거대하다. 그이께서는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모든 업적은 만년이 가도 불멸할 것이다.》(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김정일령도자께서 쌓으신 위대한 업적은 조선의 미래를 담보하는 만년토대이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인류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었다.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조선에는 그 어떤 력사의 광풍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실현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였다.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은 조선에서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와 인류자주위업실현을 담보하는 고귀한 유산이다.》(도이쾰란드신문 《로테 파네》) 《김정일령도자는 정치가로서의 품모와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시고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선군령장, 인민의 아버지,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그이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인류자주위업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로씨야신문 《브이보르》) 위대한 장군님은 불멸의 혁명생애와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우리 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절세의 애국자, 인류의 태양으로 영생하고계신다. **본사기자**

설 명 절 날 에 있 은 이 야 기

헌 신 의 하 루

주체88(1999)년 2월 16일은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기념일이자 설명절날이기도 하였다. 자신의 생신날에도 온 하루 전신걸을 걸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저녁상에 마주앉으시었다. 몇가지 감자음식이 놓여있는 겸소한 저녁상앞에서 오늘날 자신께서는 군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리도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토의하는 장소로 되였다. 시간은 흐르고 밤이 소리없이 깊어가는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는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고 일하여 어머니수령님께서 녀념하신대로 기어이 우리 나라를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낙원으로 만들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고 한다고 하시며 또다시 일감을 잡으시었다. 결국 그날 저녁식사자

혼 연 일 체 에 대 하 여

사회의 참모습이라고, 원수들이 발악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굳건해지는것이 우리의 혼연일체이고 일심단결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리움은 곧 혈연이다. 혈연은 강요로도 맺어낼수 없고 총칼로도 끊어버릴수 없는 심장과 퍼줄처럼 이

어진 밀접한 관계이다. 령도자와 인민이 혈연의 정으로 하나로 이어진 조선의 혼연일체야말로 그 어느 나라도 가질수 없는 공화국의 힘이고 생명이며 세상이 열백번 바뀌어도 변함없는 공화국의 참모습인 것이다. **본사기자**

최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특명에 따라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낸 공화국 국방위원회의 공개서한은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겨레의 념원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최대의 민족사적과제이며 민족의 일원이라면 그 누구든 통일을 외면할수 없고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내외에 너도나도 떨쳐나서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분렬의 비극, 반목과 질시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나아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를 헤아

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그 해결방도를 명시하시었다.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북남사이의 관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분렬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낳는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립장과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공개서한을

한강도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겨레가 근 70년 동안 겪고있는 분렬의 고통을 기어이 끝장배야 한다는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어떤 립장과 자세로 교와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공 개 서 한 에 어 린 통 일 의 지

계를 개선하기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명철한 가르치심이었다.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데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는 공개서한은 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실천적제안을 담은 것이다.

접한 온 겨레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의지를 굳게 다지고있는 것이다. 공개서한의 구절마다에는 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단호한 결심과 굳센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오랜 세월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천명하시었고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찾으시여서는 후대들에게 통

일된 조국을 물려줄 철석의 의지도 피력하시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고 하여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도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그의 심혈과 의지가 공개서한의 자자구구에 그대로 담겨져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고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지가 있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겨레의 마음을 비추고있으며 겨레의 통일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말것이다. **리 철 희**

강산에 넘치는 민족의 향취

매마다 민족성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고색창연한 민족문화유산을 보시면 우리는 우수한 민족문화를 숨겨 살리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인민들에게 조선민족의 궁지와 자부심을 더욱 복돋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고 민족음식품평화장을 찾으시어서는 선조들이 창조한 우월한 민족음식들을 우리 대에 모두 찾아내고 시대적요구에 맞게 발전시켜으로써는 나라에 민족적향취가 더욱 풍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자고 이르기기도 하시었다. 한때대미침에 맞게 더욱 훌륭히 완성되고 널리 보급되어 인민들과 친숙해진 장고춤이며 돈돌리춤, 부채춤을 비롯한 많은 민족무

용들에도 장군님의 열렬한 민족애와 애국의 뜻이 어려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황해북도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이곳 농장원들이 출연한 민속무용 봉산탈춤을 보시고 오래전에 보시였던 봉산탈춤을 추억하시었다. 그날 그이께서는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우수한 문화적재부를 옮겨 계승발전시키시는 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민속무용을 적극 장려하고있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었다. 원창국을 먹는 조선사람은 조선민족을 들어야 어깨 올라간다고 하시며 이 땅에 민요의 흥겨운 가락이 울리게 하시고 조선민족의 고유

한 춤가락도 찾아주시여 사람들의 가슴속에 애국의 념이 더욱 불타게 하신 장군님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노래를 불러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선물에 맞추어 부르고 춤을 추어도 우리 민족의 장단에 맞추어 추며 옷을 입어도 조선옷을 즐겨입는 민족고유의 우수한 문화전통이 변함없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과 함께 민족성이 빛나게 구현된 공화국의 현실은 절세의 애국자를 모실 때 민족성이 고수되고 길이 빛나는 것을 뚜렷이 증명하고있는 것이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전통이 더욱 활짝 꽃피어나고있으며 나라의 존엄과 위용이 만방에 떨쳐지고 있다. **본사기자 김 강 철**

아름다운 레의 집에 대한 생각이다. 얼마전 나는 새로 건설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돌아보게 됐다. 친구 이면서 대학에서 재로 과학부 부학부장을 하고있다는 박사 최용국선생의 가정방문이 기회가 됐던 것이다. 언제부터 오고가던 친우의 청과 내 약속이 인제야 이루어졌다. 대한무역의 그날은 최동무의 생일날이었다. 방문객을 맞이한 주인내외의 깃듯한 인사로부터 서로 회포를 나누는 것, 막연한 친구지간에 오간 등을 얘기하느면 끝이 없을상싶다. 그래서 꼭 짚고 들어가야 할 소감을 내비치게 됐다. 스승과 제자간의 룬리도

그이의 말씀이었다. 한 가정의 방문을 통해 나는 교정에 흐르는 고상한 룬리도, 사화에 넘치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간적향취에 대해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다. 세세년년 이어지는 민족의 우수한 레의법절과 미풍양속에 대해 다시금 체험할수 있었다. 지식에서뿐 아니라 사상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인격자의 모습을 갖추고있는 대학생들의 모습에서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이고 나라의 앞날인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란치는 사회주의문명국의 패일을 보는듯싶었다. **본사기자 리 설**